

2026.6.11. 목 14:00~17:00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



Ç-TÜRK
ANKARA SİYAH
ÇOKLU VE YETİMİNESİ
ANKARA SİYAH ORPHANAGE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앙카라 학원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앙카라 학원

진행순서

시간	내용
14:00~14:15	•식전행사 전시 관람
14:15~14:35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14:35~15:05	•기념영상 초승달의 온기로 피어난 양카라학원 •감사장 전달 및 기념촬영
15:05~16:05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활약 - 박동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양카라학원’이라는 동지에서 날개를 달다: 구술로 보는 양카라 형제회 회원들의 생애사 - 김현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16:05~16:15	휴식
16:15~16:5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한동민(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관장) - 김보영(인천가톨릭대학교 강사) - 소현숙(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장) - 박정하(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16:55~17:00	폐회

차례



주제발표

주제발표 1

-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활약 07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제발표 2

- 양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21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주제발표 3

- ‘양카라학원’이라는 동지에서 날개를 달다 : 43
구술로 보는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생애사
김현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종합토론

토론문 1

- 김보영 (인천가톨릭대학교 강사) 71

토론문 2

- 소현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장) 73

토론문 3

- 박정하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75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양카라학원

주제 발표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활약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엔의 집단안전보장과 참전 결의



- 1950년 6월 26일**
적대행위 중지 권고
- 6월 28일**
한국 군사지원 결의
-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설치

전투부대 파병국 미국·영국·캐나다·튀르키예 등 16개국

의료지원국 스웨덴·인도 등 6개국

튀르키예 병력 규모 미국·영국·캐나다 다음으로 4번째 최대 파병국

- ※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 ※ 한국전쟁은 '북한 대 유엔'의 전쟁으로 확대
- ※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어 16개국 전투부대 통합 지휘

유엔의 집단안전보장과 참전 결의

**1 세계 평화
신념** 세계 평화 확립이 곧 튀르키예 조국과
가정의 필요조건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

**2 러시아
위협 대응** 다르다넬스·보스포러스 해협 통제권 요구 등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미국과의 군사 결속 강화

**3 NATO
가입 열망** 1949년 창설된 NATO 가입 기회로 인식.
실제로 1952년 2월 NATO 가입 실현



튀르키예는 1950년 7월 18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1개 여단 파병 결정,
7월 25일 국회 만장일치 승인

※ 지상군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파병 결정

튀르키예 제1여단 편성과 한국 파병

여단 편성 (1950. 8. 3.)

보병 제28사단 제241연대와 제2기갑여단 제2포병대대를 중심으로
공병·수송·의무·통신 지원부대를 포함한 독립작전 가능
여단급 부대 편성

여단장: 야즈즈(Tahsin Yazici) 준장

총병력: 5,090명

출항: 1950년 9월 25일 이스켄데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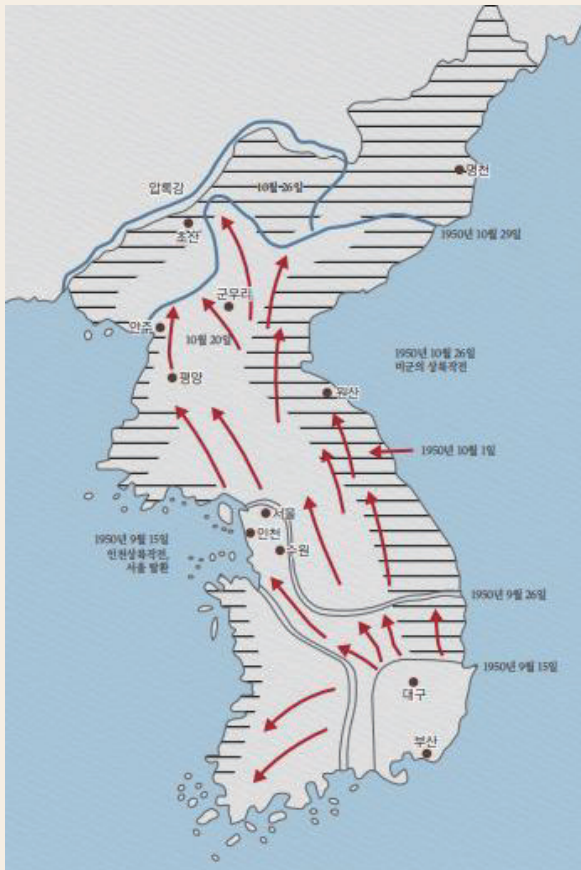
부산 도착: 1950년 10월 17일

항해 중 미군 교관에게 미제 무기 운용법과 전술을
교육받음



군우리 전투 (1950. 11. 26. ~ 12. 1.)

중공군 제2차 공세 시 제1여단이 군우리-순천 협곡에서 중공군 제38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돌파한 철수작전



- 1 11월 26~28일 와원리 첫 교전, 신립리 철수
- 2 11월 29일 중공군 기습, 봉명리 혼란 속 포위망 돌파
- 3 11월 30일 '태형의 계곡' 협곡 통과, 미 제2사단과 합류
- 4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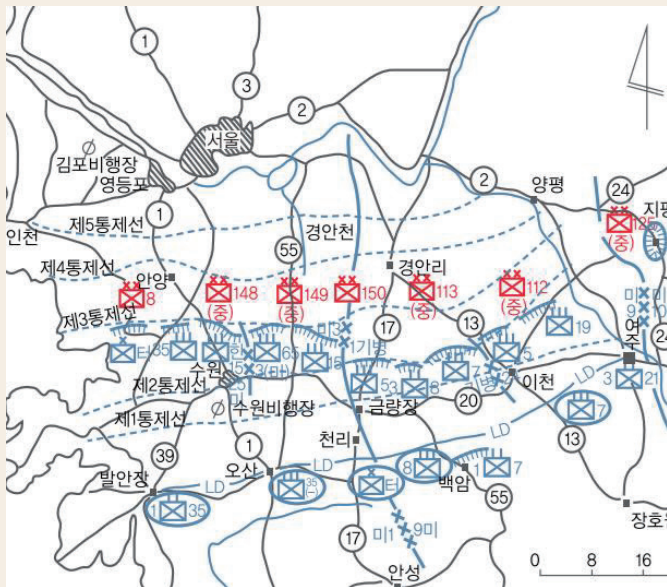
7일간 병력의 15%와 주요 장비 70% 상실.
그러나 결사 분전으로 미 제2사단의 계곡 돌파를 가능하게 함.



김량장·151고지 전투 (1951. 1. 25.~27.)

썬더볼트작전의 핵심 전투

미 제25사단 우측 부대로 투입된 제1여단이 중공군 제50군 2개 연대를 격퇴하고 전략 요충지 탈환



제2대대: 김량장 탈환 (유엔공군 근접지원)

제3대대: '알라'를 외치며 백병전으로 151고지 탈환

중공군 전사자: 김량장 77명 + 151고지 397명
= 총 474명

병사 1명당 중공군 약 40명을 무찌른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전공'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음

-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1951년 7월 6일)
-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표창 (1952년 9월)



장승천 전투 (1951. 4. 22.~23.)

❖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1950.10.~1951.5.)

- 제1차 공세 : 1950. 10. 25.~1950. 11. 5.
- 제2차 공세 : 1950. 11. 25.~1950. 12. 3.
- 제3차 공세 : 1950. 12. 31.~1951. 1. 8.
- 제4차 공세 : 1951. 2. 11.~1951. 2. 16.
- 제5차 1단계 공세(4월 공세) : 1951. 4. 22.~4. 30.
- 제5차 2단계 공세(5월 공세) : 1951. 5. 16.~5. 22.



장승천 전투 (1951. 4. 22.~23.)



연천군 장승천 일대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춘계공세를 이들간 저지한 방어전투

- 중공군 제12군 제34·35사단+제60군 제181사단 동시 공격
- 제1중대 경계소대 전원 전사하며 본대 철수 엄호
- 피해: 전사 66명, 부상 35명, 실종 105명

중공군 3개 사단 공세를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인접 부대의 안전한 철수와 유엔군 반격 기반 마련에 기여

1951년 6월 18일 기준 제1여단 누계 손실: 전사 423명, 부상 1,118명, 실종 293명

제2·3여단 교대와 네바다 전초전



제2여단 (1951.8~1952.9)

정전회담 병행 시기, 정찰·방어 위주 작전.
샌드백 캐슬 전초전에서 부여단장 전사



네바다 전초전 (1953.5.28~29)

제3여단이 카슨·엘코·베가스 전초에서 중공군 제120사단과 격전.
전사 151명, 부상 239명



정전 후 활동

1953년 7월 27일 정전 후 의정부 용현리 주둔.
1966년 마지막 중대
1971년 6월 27일 의장대 귀국으로 참전사 마감

튀르키예군 참전 결과

21,212

총 파병 인원
3개 여단 순차 교대

1,155

부상자

966

전사·사망자

234

포로

한국 정부 훈장

을지무공 10회, 충무무공 22회, 화랑무공 10회

미국 정부 훈장

은성훈장 5회, 동성훈장 7회, 대통령 부대표창 다수

전투 유산

튀르키예군 전투는 백병전으로 끝난다" — 용맹의 상징

형제의 나라, 영원한 유대

피로 맺어진 한·튀르키예 우정

튀르키예군은 군우리, 김량장·151고지, 장승천, 네바다전초전에서 보여준 불굴의 용맹으로 한국전쟁사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1951 - 1979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목 차

01

튀르키예군의
수원 주둔과
앙카라학원 설립

02

1950년대
앙카라학원의
운영

03

1960년대
앙카라학원의
운영

04

1970년대
앙카라학원의
변화와 폐쇄

1-1 튀르키예군의 수원 주둔

용인 김량장 전투

1951. 1. 25.~27.

- 썬더볼트 작전(서울 재탈환) 투입
김량장 전투에서 대승



의무부대 수원 서둔동 주둔

1951. 1. 27.~

- 부상병 치료 등을 위해 의무중대
중앙농업기술원(서둔동) 일대 주둔



후방지원 및 전쟁고아 보호

1951~1953년

- 후방지원 업무 : 1여단 보충병 및
2여단 훈련소 설치 등
- 전쟁고아와 피란민 아동 보호



➤ 1906년 권업모범장 → 1929년 농사시험장 → 1949년 중앙농업기술원 → 1957년 농사원 → 1962년 농촌진흥청

1-2 앙카라학원 설립

설립일

1951년 6월 11일

수용 인원

전쟁고아 28명 + 피란 아동
65명 = 총 93명

위치

수원시 서둔동 209번지
중앙농업기술원 소유건물
(옛 농사시험장 관사)

명칭 유래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설립 목적 : 아동 보호 및 교육



“

나는 군대 배식에서 나온 음식과 내 몫의
보급품, 비누와 초콜릿, 껌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5~10명뿐이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해결했다.

— 하산 휘세인 딘치튀르크
(앙카라학원 설립 주도 선임하사)



1-3 양카라학원 원장과 양카라학원 원사 이전

제1대	최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량포국민학교 교장 1951년 6월 11일 설립 당시 교장 1953년 7월 안성 개산국민학교 교장
제2대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3년 하반기 원장직 수행
제3대	지동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7년 장단군 출생 1947년 수원농업중학교(6년제) 졸업 1951년 4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 1953년 11월 양카라학원 원장 취임 1953년 12월 양카라학원 이전(서둔동 45번지)



1-4 튀르키예 제5여단의 앙카라학원 지원



제5여단

- 1954년 6월~1955년 8월 주둔
- 제5여단장 메테 유르다쿨(Mete Yurdakul)
- 튀르키예 철군 이후 앙카라학원 자립 기반 마련

특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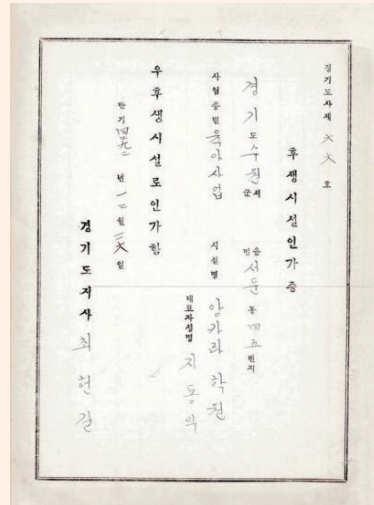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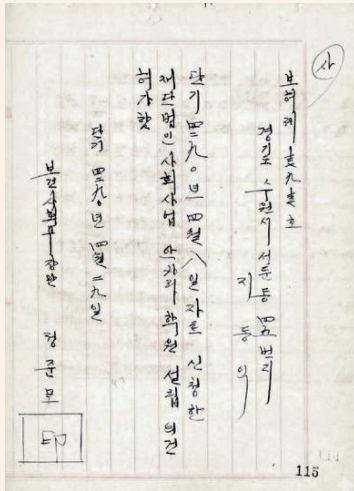
- 앙카라학원 5,000m² 토지 기증(경영 기반)
- 기숙사 건립(서둔동 39번지)
- 운영비 1,755달러
- 1954년 하반기 각종 식재료(약 1,387상자)



2-1 양카라학원의 제도화(재단법인 설립, 후생시설 인가)

1957. 4. 29. 재단법인 설립 인가

1959. 12. 26. 후생시설 인가



제도 마련

- 1952년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건' 공포 : 재단법인 설치와 시설 인가

법적 주체 확보

- 개인 자격으로 대규모 부지·건물·계약 한계
- 법인화 시 독립 주체로 재산 직접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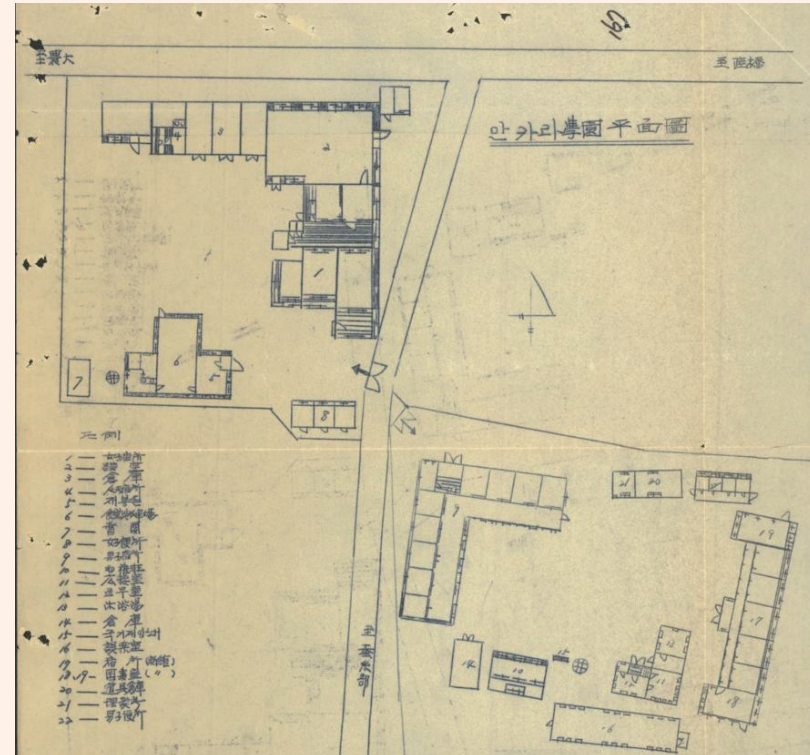
시설 운영 자산 보호

- 설립자 사망 시 시설의 목적에 맞게 자산 유지
- 상속 분쟁 방지

보조금·원조 수급

- 보건사회부 보조금 대상 법인 시설로 제한
- 해외 원조기관도 법인 파트너 선호

2-2 시설 배치도(1959년)



2-3 시설 현황(1959년)

시설 현황 (총 316평)

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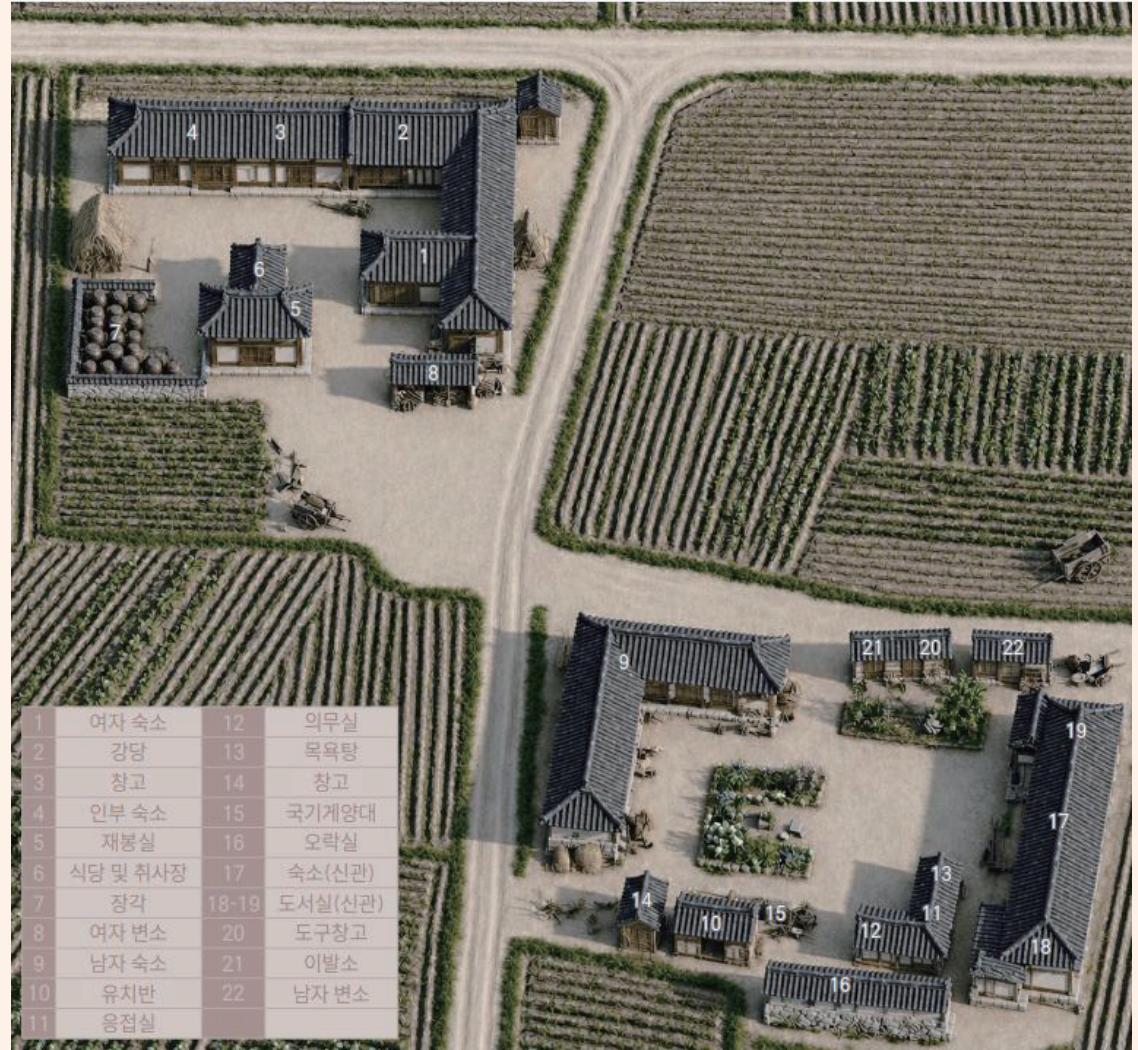
남자숙사 86평, 여자숙사 24평,
식당 34평, 취사장 9평,
목욕장 9평, 이발실 4평

교육시설

도서실 9평, 음악실 9평,
재봉실 8평, 강당 36평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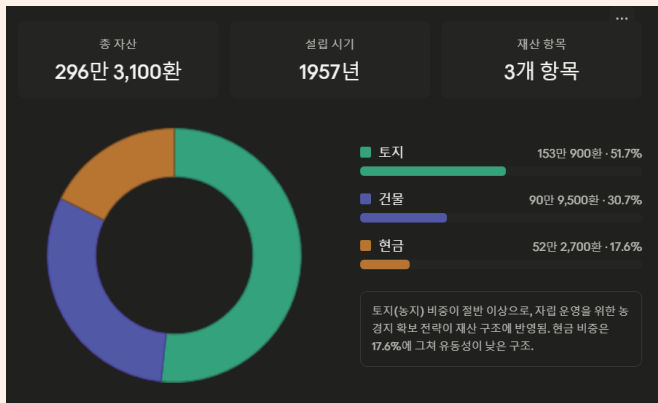
응접실 8평, 오락실 22평,
의무실 8평, 창고 50평



2-4 재산목록(1957년)

1957년 법인 재산목록

소재지	지적	면적(평)	가액(환)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23-1	임야	4,962	496,200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22-2	임야	426	42,600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382	임야	237	23,700
화성군 일왕면 천천리 424	임야	1,722	172,20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1	전	684	102,60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7	전	659	98,85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3	전	712	106,80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6-1	전	13	1,950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585-8	전	3,240	486,000
수원시 서둔동 39-1	건물	35	875,000
수원시 서둔동 39-1	건물	3.45	34,500
현금			522,700
합계			2,96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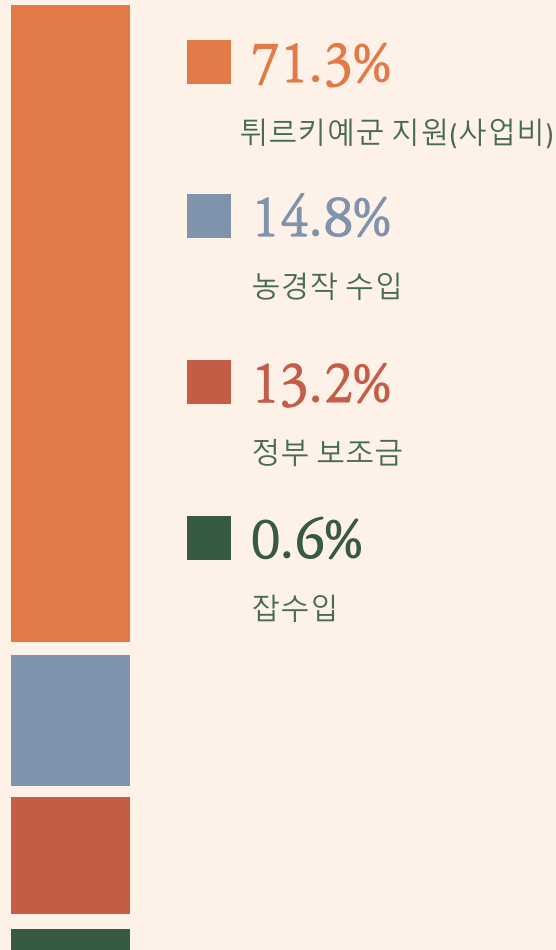
양카라학원 일대 지동의 소유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평)	소유자	소유권 획득	소유권 이전
서둔동 39-1	답	2,183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0년 6월 5일
서둔동 39-9	답	343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서둔동 39-13	답	812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31일
서둔동 39-14	답	346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22일
서둔동 39-15	전	400	지동익	1966년 12월 31일	
서둔동 39-17	대	27	지동익	1955년 2월 19일	1971년 10월 22일
서둔동 39-21	전	151	지동익	1968년 1월 12일	
서둔동 45-4	답	673	지동익	1971년 8월 12일	1971년 8월 12일
서둔동 45-7	답	57	지동익	1964년 7월 6일	1967년 4월 12일
서둔동 45-9	대	167	지동익	1971년 1월 19일	1971년 11월 13일
서둔동 48-1	답	572	지동익	1965년 3월 2일	1968년 12월 18일
서둔동 51-2	대	199	지동익	1965년 2월 15일	1973년 12월 29일
서둔동 51-4	답	352	지동익	1967년 4월 12일	1973년 7월 30일
서둔동 51-6	대	82	지동익	1965년 2월 15일	1973년 12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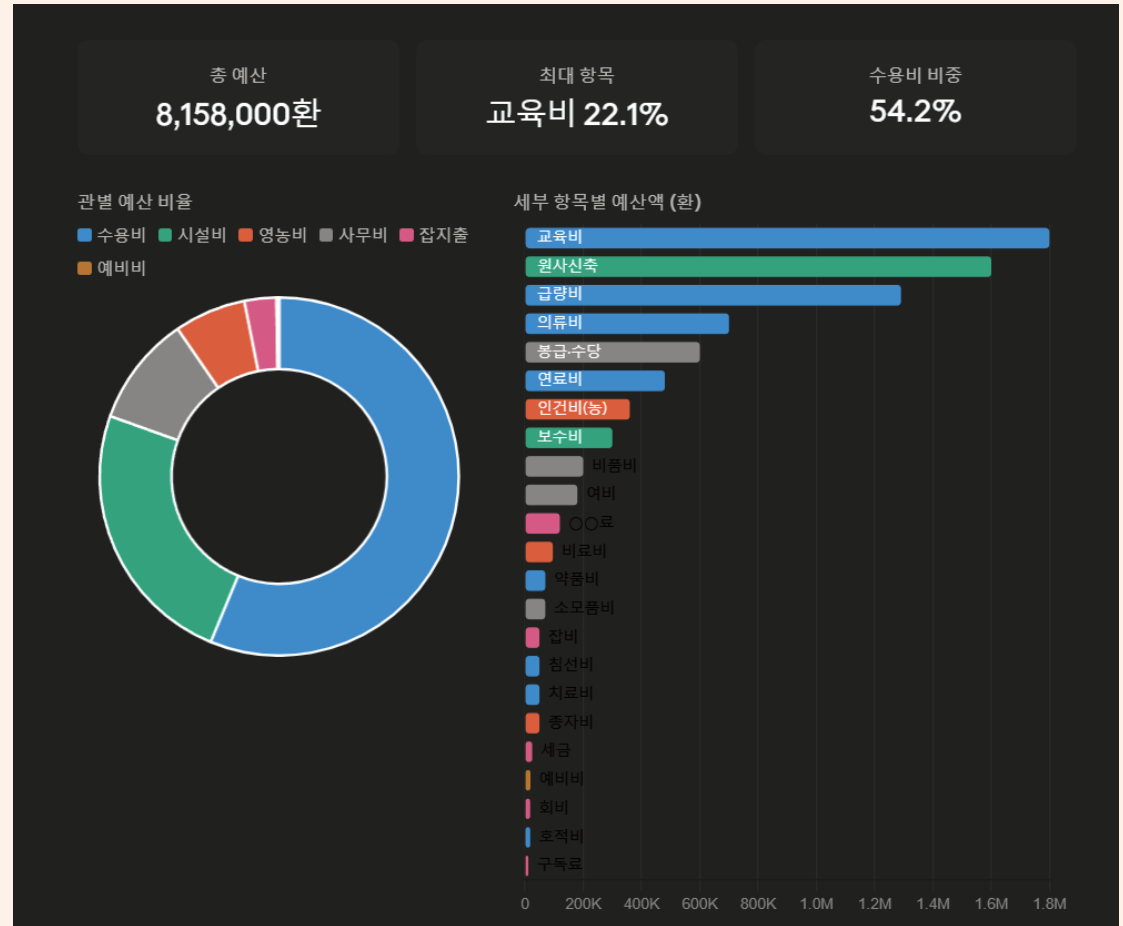
- 지동익 소유 토지 중 서둔동 39-1번지 일부 토지만 재단법인 양카라학원 재산목록에 포함
- 1955년 2월 19일 소유권 획득 토지는 튀르키예 제5여단 기증 토지
- 법인 재산목록 중 천천리 임야도 튀르키예 제5여단 기증 토지도 1955년 2월 19일 소유권 획득

2-5 재정구조(1959년)

1959년 수입예산



1959년 지출예산



※ 당초 자립 방침과 달리 외부 지원 의존 구조 — 튀르키예 관련 기관 지원이 압도적 비중

2-6 재단법인 이사회 구성(1957년)

지동익 이사장의 인적 관계망 중심으로 구성

농학 계열 교수

- 김호식 — 서울대 농과대 교수, 前 중앙농업기술원장
- 이성환 — 서울대 농과대 농화학과 교수
- 신재상 — 서울대 농과대 교수
- 심종섭 — 서울대 농과대 교수 (미시간대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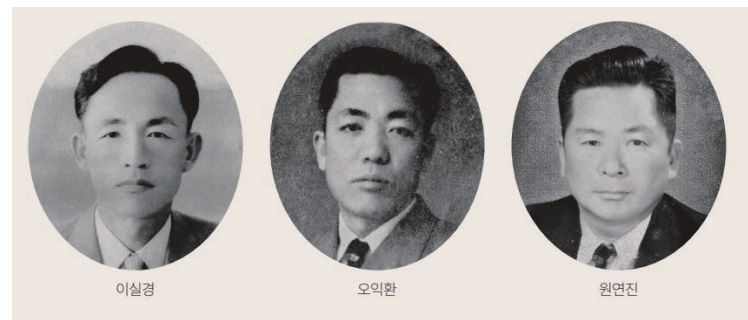
역할: 기관의 공공성·정당성 보증 (상징적 권력)



지역(행정·교육·경제) 인사

- 이실경 — 수원시 부시장, 보건후생과장
- 박대득 — 교통부 역장
- 오익환 — 수원농림고 교감
- 원연진 — 수원상공회의소 감사

역할: 행정 연결·후견 네트워크



2-7 원생 현황(1959년 기준 131명)

입소 시기별 분포

1951~1952

49.6%

전쟁고아 긴급 수용

1953

9.2%

전환기 (정전 전후)

1954~1956

11.3%

최저점 — 복구 안정기

1957~1959

29.8%

재증가 — 빈곤·가족해체형, 피란민 재정착

본적지 TOP 5

강원도

37명 (28.2%)

※ 강원도 철원·김화 최다

경기도

24명 (18.3%)

서울시

20명 (15.3%)

충남

12명 (9.2%)

함흥시

7명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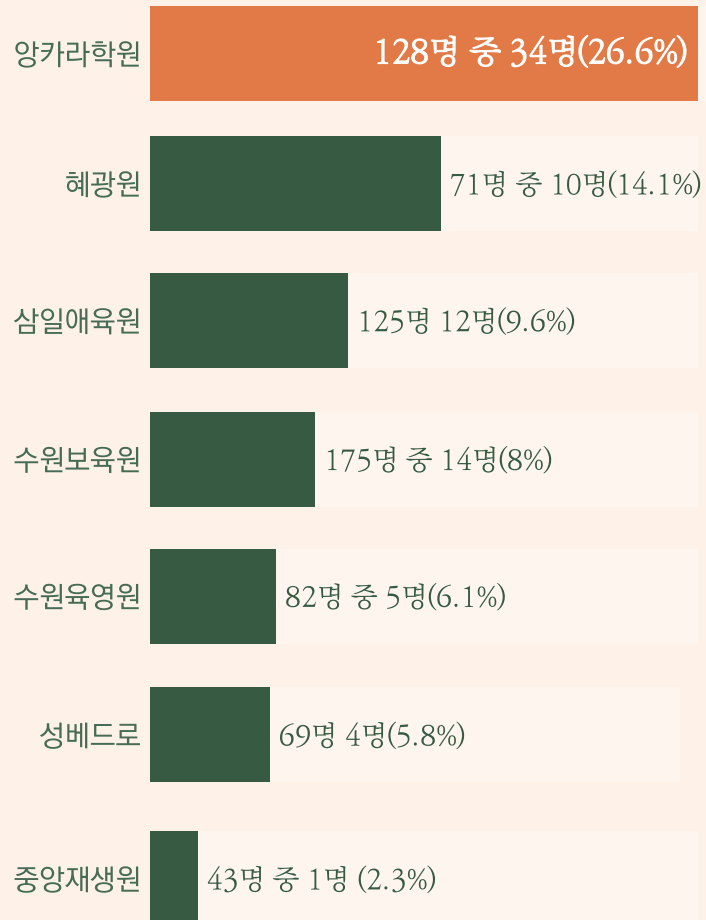
2-8 수원 후생시설 교육 현황 (1955년)

시설명	수용 인원	원내 교육 (초등)	원외 교육				미취학	기타
			초등	중등	고등	계		
성베드로보육원	69		29	4	3	36	25	8
양카라학원	128	31	54	34	3	91	6	
수원육영원	82		27	5		32	17	33
중앙재생원	43		6	1	3	10	13	20
혜광원	71	29	25	10		35	7	
삼일애육원	125		87	12	3	103	19	3
수원보육원	175	17	83	14	5	102	56	
합계	783	77	311	80	17	409	14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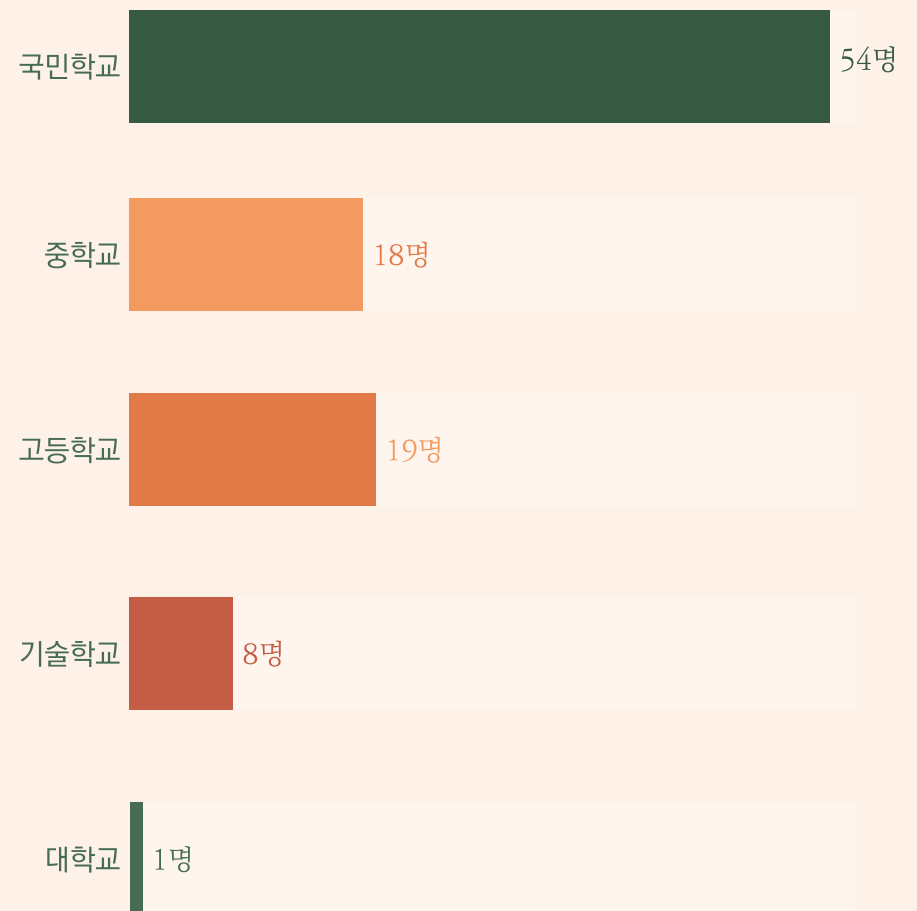
- 원내 교육 : 시설 내에서 1~4학년 정규교육 후 5~6학년 일반 학교에서 수학
- 원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는 기타로 분류되는 학령 인구 중 비교육 상태 아동 없음
- 양카라학원은 중학교 재학생 비율 높음

2-9 양카라학원 아동 교육 현황

1955년 수원 후생시설 아동 중학교 재학 비율



1959년 양카라학원 원생 교육 현황 (100명)



3-2 1960년대 양카라학원의 위기

👤 전쟁고아 대거 퇴소

- 1964년까지 총 545명 보호·양육
- 사회 진출 398명 (취업 109, 부모 인계 210, 입양 30, 출전 49)

🏠 새 유형 아동 입소

- 1964년 147명 중 144명이 빈곤·가족 해체 등의 사유

😊 양카라영아원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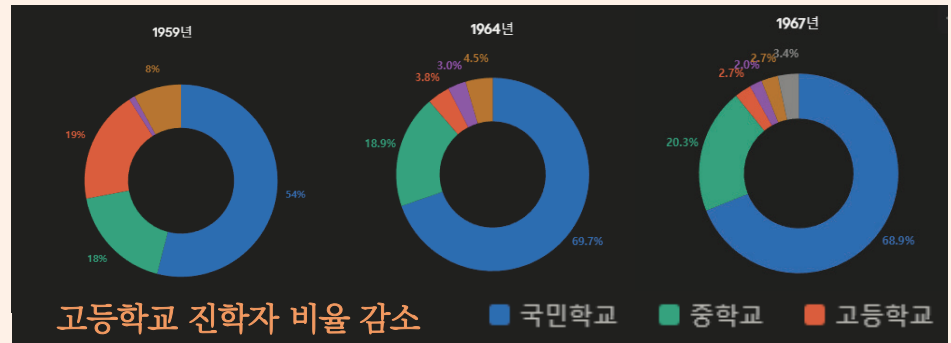
- 1961년 아동복지법, 영아원·육아원 구분
- 1965. 8. 15. 양카라영아원 신설 (양카라육아원, 양카라영아원 2개 시설 병행)

💰 재정 문제

- 튀르키예군 감축(여단에서 중대 규모) 및 철군 → 지원 축소 및 중단
- CCF(기독교아동복지회) 의존

👥 이사회 구성 문제

- 1968년 이사 및 감사 임기 만료
- 서울대학교 김호식 교수 사망 후 임원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난항



1968~1971년 시설 인가 갱신 미처리로 행정 경고

4-1 1970년대 양카라학원의 변화

1971

운영 정상화

- 임원 재선임 및 시설 재인가
- 기아일시보호소 설치(11.10.)
- 육아원 정원 125→75명,
- 영아원 정원 75명 확대

1973

양카라영아원 폐지

- 동일 법인 다중 시설 억제 정책
- 영아 35명 홀트아동복지회 전원
- 연인원 301명 수용 후 폐지 (1965~1973)

1974

수원 → 용인 이전

- 이전지 :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
- 재단법인 → 사회복지법인 전환

1975

원장 교체

- 홍석영 신임 원장 취임
- 해바라기농원 폐지 아동 67명과 함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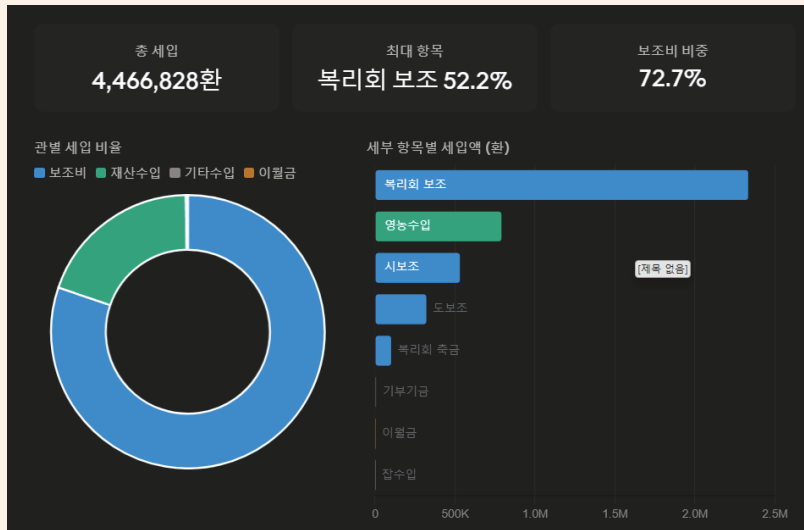
1979

양카라학원 폐지

- 법인 양카라학원과 법인 혜광원과 합병 → 소천유지재단 설립(5.21.)
- 양카라학원 시설 폐지 결의(7.10.)
- 양카라학원 시설 폐지 허가(8.4.)
- 아동 47명 서강학원(구 혜광원)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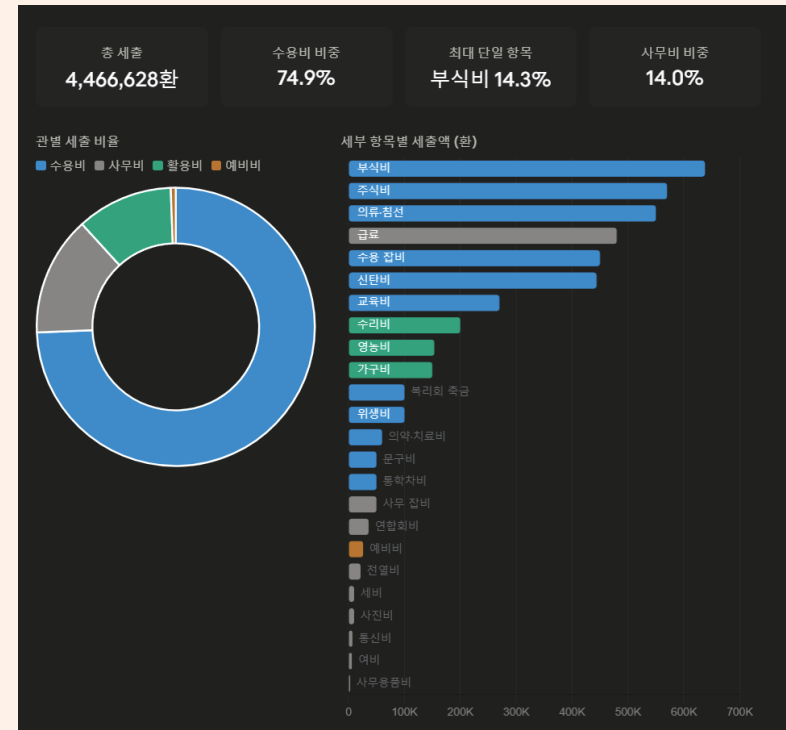
4-2 1971년 양카라학원의 예산

1971년 양카라학원 세입예산



- 보조비(72.7%)가 세입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 : 기독교야동복리회 가 단일 항목 1위로 전체의 52.2%
- 자체 수입인 영농수입은 17.7%로 2위이나 외부 보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

1971년 양카라학원 세출예산



- 수용비(74.9%)가 지출의 3/4을 차지
- 원생들의 의식주 관련 지출이 집중
- 교육비 6.0%로 감소

4-3 1974년 양카라학원의 용인군 이전

기본재산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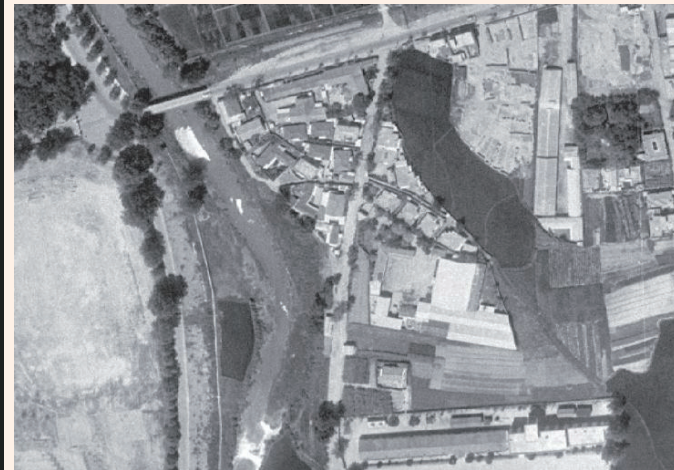
시설 소재지 이전

이전지 :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55-7번지

이전일 : 1974년 1월 31일

이전사유

- 서울농대와 농촌진흥청의 농약, 양카라학원 주변 민가와 공장 밀집에 따른 환경 문제
- 수원시에 6개 아동복지시설 운영, 용인군에는 전무, 지역 간 복지시설 불균형 완화



4-4 1979년 양카라학원의 폐지

1979년 4월 10일
사회복지법인 양카라학원과 사회복지법인 혜광원
법인 합병 허가



1979년 5월 21일
소천유지재단 설립(법인 2곳 합병)



1979년 7월 10일
양카라학원과 혜광원 시설 단일화 결의
양카라학원 폐지 결정



1979년 7월 25일
혜광원을 서강학원으로 명칭 변경



1979년 8월 4일
양카라학원 폐지 허가
아동 47명 서강학원 전원 조치

양카라학원
지동익 이사장 및
임원진 사퇴

사회복지법인 양카라학원 사업종목 속 아
소매점 경기도 용인군 양카라(47) 시설 종속
폐지 결정 변월일 1979년 7월 22일
폐지된 법인 인가 2개에의 시설과 시설을 수천시 경간중
7-12 번(1) 소재한 서강학원(구혜광원)으로 단일화
사유 재기취한 조취임.

별	거액구축	별
입	별	직 2
무	관	4f
유	관	별
고	관	47
총	합	47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규정의 의무를 본사인 사회복지 시복은
해자 최고자 신중과도어 승인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7월 18일
주소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상갈리 11-4
법명 양카라학원
시관장 총 석 아
보건사회부 장관
경기도 역사 문화
등 인 관 수 13

양카라학원 폐지 이후

1988년
사회복지법인 소천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효행원으로 변경

2000년
사회복지법인 효행원-
사회복지법인
꿈을키우는집으로 명칭 변경

2007년
효행원에서 꿈을키우는집으로
시설명 변경



1951 – 1979

감사합니다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양카라학원'이라는 동지에서 날개를 달다

구술로 보는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생애사

2026. 06. 1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류학전공 | 김현미

CONTENTS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앙카라학원과의 인연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5. 결론: 생애 구술 연구의 의미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01 연구의 목적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의 생애 구술 자료 수집
양카라학원의 구체적인 모습과 존재 의의 탐색

02 연구의 방법

2025년 봄 양카라형제회 회원 7명 (남 4, 여 3) 인터뷰
1인당 2시간 이상, 자택 등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

03 발표의 구성

본론 1. 양카라학원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본론 2. 양카라학원에서의 일상 생활
본론 3. 양카라학원에서 독립한 이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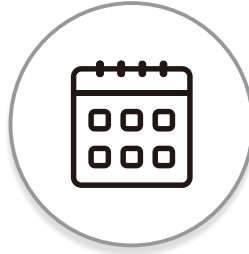
1.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정보제공자 기본 정보 정리



정보제공자 수

총 7명
- 남성 4명
- 여성 3명



출생 시기

1935년 1명
1938년 1명
1939년 2명
1942년 1명
1945년 1명
1948년 1명



출신 지역

서울시 1명
강원도 3명
황해도 2명
평안남도 1명



입소 시기

1951년 4명
1952년 2명
1953년 1명

2. 양카라학원과의 인연

01 입소 시기

회원 대다수가 1951~1952년 전쟁통에 양카라학원 입소

02 일상의 파괴

뒷마루에 앉아 설탕을 퍼먹던 기억
세라북을 입고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던 기억
김장을 담가 마당에 묻어놓고 여행 가는 줄 알고 집을 나선 기억

03 혼란과 이별

살던 곳에서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잃고 불안정한 고향을 떠남 (김근태)
폭격에 부모 또는 가족을 잃음 (길문자, 오수업, 임재희)
피란길에 길을 잃고 미아가 됨(오경복)
가족들이 살아남았지만 폐허와 빈곤에 의해 학원으로 입소(길문자, 최정자)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국민학교 기초 교육

국민학교 1~4학년 과정 교육
상급학교 진학 및 사회 진출 지원



예체능 문화 역량

밴드부 결성, 음악 교육
노래, 전통무용, 시 낭송, 단체 무용 등을 연습



의식주 기본 지원

1950년대 튀르키예군의 지속적 후원
일본에서 수입한 세일러복 지급
군용 식량 배급, 토지 매입 통한 자급자족 노력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1) 국민학교 1~4학년 과정 교육

- ✓ 튀르키예군 막사의 맨땅에서 구구단을 배웠던 기억 (최정자)
- ✓ 튀르키예군이 제공한 기초 교육의 의미 1) 기본 지식 습득 및 상급학년/학교로의 연계
- ✓ 교육의 의미 2: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 전쟁 트라우마 완화, 낯선 곳에 익숙해지게 함
- ✓ 양카라학원에서 기초 교육 마친 후 상급학교 진학(임재희)
- ✓ 특정 진로 강요하지 않고 원생들 스스로 역량 향상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가 비용 지원 불가능, 1960년대 후반 튀르키예군의 원조 중단에 의한 재정 악화
임덕환의 사례(영양 불균형, 상급학교 진학 어려움), 일부는 직업군인으로 입대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2) 예체능 계열 문화적 역량

- ✔ 튀르키예군 군악대가 복무를 마칠 때 앙카라학원에 사용하던 악기를 제공
- ✔ 지동익 원장이 음악교사를 섭외, 아이들에게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
- ✔ 앙카라학원 밴드부 결성: 음악 수업에서 좋은 점수 획득, 사람들의 주목을 받음
- ✔ 최정자의 경우 중학교 입학 전까지 화령전 인근 국악원에서 한국 무용을 배움
- ✔ 그밖에 합창이나 시 낭송, 단체 무용 등을 연습, 튀르키예 군부대 위문공연이나 기념 행사 참석
- ✔ 기본 교과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역량 키우는 기회 제공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2) 예체능 계열 문화적 역량



1958년 양카라학원 밴드부
(길문자 제공)



전통 무용 복장을 입고 위문공연에 참석한 원생
(최정자 제공)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3) 의/식/주의 꾸준하고 충분한 지원



천막에서 건물로

1951년 6월 서둔동 209번지에 가설숙소 설치
1953년 서둔동 45번지, 51번지 일대로 이전
1954~55년 튀르키예군의 토지 매입, 건물 추가 건설



의복 제공

일본에 직접 가서 사 온 원복 '세일러복'
구호물자 배분을 통한 의복 제공



음식 제공

튀르키예군의 전투식량 배급: 식재료로 교환하기도 함
논밭 및 과수원, 가축 사육 통해 식재료 자급자족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3) 의/식/주의 꾸준하고 충분한 지원

✔ 옷에 대한 걱정이 없는 생활

"전쟁통에 제대로 못 입는데 군인들이 우리에게 일본 정품 옷을 사다 줘서 입었다." (오수업)

"양카라학원에서 '세라복'이라고 일본에서 입는 옷을 수입해서 전부 입혀주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못 맞춰서 그 세라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최정자)

"한 달에 한 번 신고 오는 구호물자를 원장님이 창고에 집어넣고 나눠주곤 했다.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서 각기 맞는 것을 애들에게 입혔는데 원피스가 참 예뻐다. 그때 받은 치마가 지금도 있다." (길문자)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3) 의/식/주의 꾸준하고 충분한 지원

✔ 음식을 잘 먹고 영양 상태가 좋았던 아이들

- "지금도 내가 이렇게 튼튼한 건 그 때 군인들이 전투식량을 가져다 주니까, 고기나 통조림 같은 걸 잘 먹어서 그렇다. 그리고 튀르키예 군인들이 준 전투식량을 팔아서 한국 음식으로 바꾸기도 했지,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오수업)
- "거기 있을 때 튀르키예 사람들이 정말 잘해줬다.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이 우리를 부러워했어. 우리가 잘 먹고 살이 찘으니까." (임재희)
- "튀르키예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무슨 콩을 조린 것도 있고, 외국 음식이니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다. 고기도 덩어리째 넣어 요리해 줬다." (최정자)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3) 의/식/주의 꾸준하고 충분한 지원

✔ 후원에 더해 자급자족하고자 노력하는 생활

- 인근 토지를 매입, 논과 밭, 과수원으로 활용
- 원생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젖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
- 남자 원생들은 과수원과 밭을 돌보고, 닭을 키우는 등 일손을 보탬
- 한창 닭을 키울 때는 닭의 수가 100여 마리에 이르러 원생들이 먹을 달걀을 충분히 확보
- 원내에서 거위도 사육한 적이 있음
- "거위가 아주 똑똑해서 1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식구들을 다 알아" (오경복), 외부인이 오면 쫓아내고 학원을 지킴

3. 날개를 달기 위한 준비

4) 모두가 한 가족, 서로 나누는 돌봄

한 방에서 한솥밥 먹는 형제들

- 남자아이들 숙소: 1,2,3,4,...
- 여자아이들 숙소: 꽃 이름
- 복도를 따라 늘어진 양쪽 끝방에 부모가 상주
- 한 방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배치하여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시스템 형성
- 서로를 형제자매처럼 아끼고 돌보며 유대감 형성

학교에서도 우리는 형제

- 각박한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 :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
- "우리 애들은 못 건드린다" (오경복)
- 학교에서 양카라학원 원생들만 골라내어 괴롭히는 규율부장을 불러내어 혼썰을 냄
- 국민학교 시절부터 형제처럼 서로를 지켜냄

고구마 서리 사건

- 이웃 어른의 정
- 인근 고구마밭 서리 사건
- 고구마 줄기를 끊어놓고 가서 밭 주인이 무작정 양카라학원으로 찾아와 항의
- 진액 묻은 손을 숨긴 두 아이를 원장이 혼내자, 그걸 본 밭주인이 아이들을 데려가 고구마 캐는 법을 알려주고 포대 자루 가득 담아 보냄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01 보모의 내리사랑

일부 여성회원들은 1960년대 독립 시기에 보모로 근무

02 국가 성장의 동력

남성 회원들은 전기, 토목, 건설, 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자로서 사회 진출, 국가 성장 기반을 닦음

03 여성 회원들의 삶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길러낸 후 공동체 봉사활동 및 양카라형제회 활동, 교류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1) 내리사랑을 전하는 양카라학원의 부모

✓ 양카라학원 원생이 다시 부모가 되다

- 1960년대에는 임재희, 길문자와 같이 원생이 독립 후 취업/결혼 전까지 부모로 근무하기도 했음
- 임재희: 23세에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간 양카라학원에서 3세 이상의 다양한 남자아이들을 돌봤음
"그 애가 입양 간다고 결정된 후에 나를 찾으며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거야. 나는 그 애가 진짜 내 자식 같더라고."
(임재희)
- 세분화된 직무와 돌봄
"나는 주로 남자애들을 많이 맡았지. 한 일고여덟명쯤 되었던 것 같아. 직원들, 부모들, 다 각자 맡은 일이 세세하게 있었어요. 재봉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등등. 규모가 꽤 컸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교복을 빨아주는 거야. 그때는 세탁기도 없으니 손빨래를 했지. 대야에 빨래를 담아서 농대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고 나갔어." (길문자)

4. 등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2)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다

✓ 김근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조종사용 산소 생산 기술자로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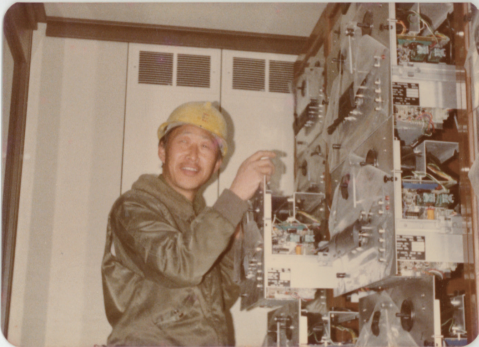


- 1935년생(서류상 1938년으로 기록)
-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1952년 양카라학원 입소
- "나는 행운아"
- "그 시절 피란 나와서 밥 한끼 굶지 않고 얻어먹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강조
- 1958년 수원 공군기지 배속 후 30년 간 전투기용 산소 생산 임무를 수행, 1988년 제대하여 대통령 표창장도 받음
- 양카라학원에서 받았던 돌봄과 교육을 바탕으로 근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림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2)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다

✔ 오경복: 가족과 재회 후 전기 설비의 전문가로



- 1939년생(서류상 1941년으로 기록)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951년 앙카라학원 입소
- 가족과 재회: "너, 죽은 놈이로구나!"
-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단단한 내면
- 종로의 전파상 조수에서 대형 극장의 전기 설비 기술자로
- 온양 관광호텔, 포항제철 공사 기초 작업, 농어촌 및 산골 지역 전기 설비 확충 공사 도맡아 속초시 표창장 수여

4. 등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2)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다

✓ 오수업: 산업 기술자에서 사업가로, 양카라형제회 회장으로



- 1945년생
- 황해도 연백, 1951년 양카라학원 입소
- 양카라학원의 알선을 통해 보일러 제작업체 취직
- 형들과의 재회 계기: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자 파견 근무
- 중동 지역 근무 중 적극적으로 현지인과 소통
- 튀르키예 군인들 사이에서 자랐던 경험이 심어준 자신감
- 건설 현장 감독으로 근무, 현재는 기업을 운영
- 양카라형제회 회장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 및 교류 도맡음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3) 여성 회원들의 삶: 마주한 현실에서 최선을

✓ 임재희: 주변을 돕고 베푸는 사람



- 1938년생
- 강원도 김화, 1951년 양카라학원 입소
- 공부도 잘하고 인망도 두터운 인재
- 고교 졸업 후 양카라학원에서 2년간 보모로 근무
- 고향으로 돌아가 헤어졌던 오빠와 재회, 남편을 소개받음
- 어린 시절 양카라학원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에 많이 베풀고자 했음
- 남편과 함께 경영하는 식당은 형제회의 단골 모임 장소
- 구걸하는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

4. 등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3) 여성 회원들의 삶: 마주한 현실에서 최선을

✔ 최정자: 손재주와 춤사위가 뛰어난, 사랑 많은 어머니



- 1939년생
- 황해도 황주, 1951년 양카라학원 입소
- 국민학교 시절 국악원에서 한국무용을 배움
- 바느질을 곧잘 해 샅바느질로 돈을 벌기도 함
- 주간에는 직물 공장, 야간에는 잠업시험장, 작물시험장 근무
- 1980년대 초반 양카라형제회 사람들과 재회
- 튀르키예인 유학생 청년과의 만남과 교류
: 튀르키예 사람들의 '어머니'
- 지역 사회 봉사활동: 부녀회, 통장, 명예 행정관

4. 동지를 떠난 후의 삶: 독립 이후

3) 여성 회원들의 삶: 마주한 현실에서 최선을

✔ 길문자: 영민한 소녀에서 온화하고 낙천적인 리더십의 여성으로



- 1942년생
- 평안남도 순천, 1952년 양카라학원 입소
- "쓸쓸하고 괴로운 이 한밤을 그대들은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 밴드부에서 코넷(cornet) 연주를 담당
- 영민하면서 현실적인 성격 : 학업보다는 취직
- 양카라학원 보모로 5년간 근무, '풀무원'에서 30년 근무
- '고아원 출신'이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 양카라학원 형제들과 교류하며 온화하고 낙천적인 성정으로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고 전하는 사람

4. 결론: 생애 구술 연구의 의미



- 튀르키예의 한국 사회 공헌의 의미: '어린이의 보호와 교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양카라학원의 원생들은 신체적, 정서적 보호와 지지를 받았고, 서로 형제자매처럼 지내며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우애를 공유하며 성장기를 보낼 수 있었음
- 전쟁의 상흔과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양카라학원'이라는 등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 홀로서기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는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양카라학원의 정신을 자손들에게 전하며 살고 있음

연구의 한계: 양카라형제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술 연구 → 1960년대 이후 학원을 조명하지 못함



- "우리는 받은 게 많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오수업)
 - 튀르키예와의 꾸준한 교류 및 관계 맺기: 튀르키예와 한국 간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양카라형제회
 - 자발적인 사회 환원 활동: 2023년 터키-시리아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기부
- 살아있는 개개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되는 가치: 생명 구원의 연쇄와 호혜의 응답, 사랑의 계승

4. 결론: 생애 구술 연구의 의미



2007년 양카라형제회와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사람들의 만남 (최정자 제공)



THANK YOU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3회 수원학 심포지엄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과
양카라학원

종합토론

토론문 1

김보영 | 인천가톨릭대학교 강사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여 약 5,000명 규모의 여단급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해 서방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하려는 전략적 판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튀르키예군은 미 제25보병사단 예하에서 활동하며 군우리 전투, 김량장리 전투, 후크고지 전투 등 주요 전투에 참가하였다. 특히 1950년 군우리 전투에서는 중공군의 공세 속에서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하며 큰 희생을 치렀고, 김량장리 전투에서는 강인한 전투력과 백병전 능력을 발휘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또한 서울 방어와 중공군 춘계공세 대응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튀르키예의 참전은 유엔 집단안보체제와 냉전기 국제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로 불리게 되는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 발표문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배경을 비롯해 참전 튀르키예군의 규모와 운영, 주요 전투, 그리고 그들의 용맹성 등을 전투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특히 파병된 튀르키예군 제1여단의 편성과 파병 과정, 주요 전투의 전개 양상을 시기별로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전투부대의 교대 과정과 참전 결과, 정전 이후의 활동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발표문의 내용과 문제의식에 큰 이견은 없으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튀르키예군의 참전과 그 역할이 지난 역사적·국제정치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쟁 발발 사흘 만인 1950년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결의안이 가결되자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파병을 결정하였다. 튀르키예 정부 역시 7월 25일

1개 여단 규모의 병력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였는데, 이는 지상군 파병 결정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신속한 사례였다. 또한 튀르키예는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 국가 가운데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다. 튀르키예군의 신속한 파병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인식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순한 파병 결정 차원을 넘어, 왜 튀르키예가 1개 여단이라는 비교적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는지, 그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당시 튀르키예 국내에서는 한국전쟁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여론과 사회적 반응이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튀르키예군의 인명 피해 비율이 다른 유엔 참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튀르키예군은 1950년 11월 중공군과 맞선 군우리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1951년 1월 김량장리 전투에서는 이른바 ‘용감한 튀르키예군’의 면모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총검을 이용한 치열한 백병전을 통해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중공군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유엔군 전선의 붕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발표문에 따르면, 1951년 6월 18일 기준 튀르키예군의 인명 손실은 전사 423명, 부상 1,118명, 실종 293명에 달하였다. 전쟁 전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튀르키예군은 연인원 2만 1,212명을 파병하였고, 그 가운데 전사·사망자 966명, 부상자 1,155명, 포로 234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유엔 참전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 규모이며, 전사자 비율로 환산할 경우 평균 2% 수준의 다른 참전국들에 비해 약 5%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부상과 실종을 포함한 전체 피해 비율 역시 다른 참전국들이 대체로 1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인 약 20%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튀르키예군이 얼마나 치열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왜 튀르키예군이 그토록 강한 전투 의지와 희생을 감수하며 싸웠는가라는 질문도 제기하게 만든다. 즉, 튀르키예군의 이러한 용맹성은 과연 어떠한 군사문화와 역사적 경험, 그리고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는지 보다 심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튀르키예군이 정전 이후에도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주둔하였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흥미로운 문제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튀르키예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의정부 인근 용현리에 주둔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4년 여름 주력 병력이 철수한 이후에도 1960년 8월까지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였다. 이후 병력은 점차 축소되었으나, 1966년에는 1개 분대 규모의 의장대를 제외한 마지막 1개 중대가 귀국하였고, 마침내 1971년 6월 27일 의장대원 11명이 귀국함으로써 공식적인 파병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튀르키예군은 영연방 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엔 참전국 병력이 1950년대 중후반 철수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한국에 잔류하였다. 미국을 제외하면 태국군(1972년 철수) 다음으로 오랫동안 주둔한 사례라는 점에서, 왜 튀르키예가 이처럼 장기간 병력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냉전기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튀르키예의 안보전략, NATO 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의 군사·외교적 연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타흐신 야즈즈(Tahsin Yazıcı) 준장을 선정하였다. 국가보훈부가 밝힌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50년 10월, 튀르키예 제1여단장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타흐신 야즈즈 준장은 군우리와 수원 등지에서 유엔군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였다. 1951년 1월 ‘썬더볼트 작전’ 기간 김량장리와 151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며 한강선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1923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병한 전쟁이었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1957년 3월 8일 공식 수교하였으며, 전쟁을 통해 형성된 군사적 연대와 감정적 유대는 양국 외교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양국 관계의 출발점이자 상호 정체성을 형성한 역사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형제의 나라’ 담론과 ‘용맹한 튀르키예군’이라는 서사는 모두 한국전쟁 경험을 매개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향후에는 튀르키예의 참전 배경과 군사적 활동, 전후 기억과 외교적 영향 등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부터 매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을 국내 인물과 유엔 참전용사 각 1명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선정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엔 참전용사 선정의 주인공으로 튀르키예의 타흐신 야즈즈 사령관이 선택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공(戰功)의 기쁨을 넘어, 최근 한국과 튀르키예 관계를 반영한 상징적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유엔 참전국 서사를 새롭게 정비하고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선정은 유엔 참전국의 구체적인 전투 성과와 전쟁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훈서사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는 향후 유엔 참전국의 군사활동, 국제정치적 의미, 전후 기억과 보훈정책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 2

— 소현숙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장 —

한국전쟁은 다수의 전쟁고아를 양산했습니다. 남북한 각 5만, 합쳐서 대략 10만여 명 정도의 전쟁고아가 발생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전쟁 직전인 1949년 전국적으로 101개 고아원에 7천 3백여 명의 아동이 수용·보호되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이후인 1952년 8월에는 280개 고아원에 수용 아동이 3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전쟁 전과 비교할 때 시설 수는 2.8배, 수용 아동 수는 4.2배 증가한 셈입니다. 이들 고아원이 전후 전쟁고아의 성장과 함께 폐쇄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여 한국 사회복지시설의 근간이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을 계기로 설립된 고아원에 관한 연구는 전쟁의 사회상이나 지역사를 밝히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복지사의 전개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 시기 튀르키예군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앙카라학원의 설립과 운영 실태에 관한 홍현영 선생님의 발표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전반적인 고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본 적은 있으나, 이처럼 구체적인 고아원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 이 시기 사회사업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주목되었던 것은 외원단체들의 활동인데요, 이 단체들은 미국에 본부를 둔 단체가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탈리아, 영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등으로, 대체로 백인 제국주의 국가의 단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원조 행위는 백인 제국주의 국가의 제3세계에 대한 시혜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홍 선생님이 분석하신

앙카라학원 사례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반식민지적 상태를 경험한 튀르키예의 군대가 지원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새로 발굴하여 성실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지역사는 물론 한국사회복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문의 전반적인 분석에 동의하면서, 이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튀르키예군은 왜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졌을까?
재원은 어디서 조달했나? 언제까지 지원했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원단체들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고아, 미망인 자녀 혹은 빈곤가정 자녀 등 아동 구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성인보다 아동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동의 곤궁한 모습이 서구 국가의 시민과 언론에 큰 호소력을 가져 모금이 수월했던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됩니다. 튀르키예군이 앙카라학원을 설립하게 된 과정 역시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외원단체가 민간단체로서 본국에서 지원금을 모았던 것과 달리, 튀르키예군의 경우 그런 모금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또한 튀르키예군은 1966년 7월 최종 철수하게 되는데, 앙카라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철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기적 후원이었는지, 부정기적 후원이었는지, 그리고 군은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2

1957년을 기점으로 수용아가 증가하는 현상의 배경은?

발표에서는 1957년 수용아 증가의 배경으로 당시 빈곤아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 시기 보건사회부 부녀국에 아동과가 신설되고 아동복지법 제정(1961)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던 사회적 흐름과도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행정체계가 수립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구호가 제도화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서, 시설 수용이 하나의 사회적 해법으로 자리잡아 가는 흐름이 수용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요?

3

원생들은 농사를 지었는가?

발표에서는 양카라학원이 상당히 넓은 농지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고아 보호와 노동·생활을 결합한 농장형 복지시설의 성격을 지녔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일제시기부터 민간 고아원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으므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원생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활 실태 관련 자료가 있는지요? 선감학원의 경우처럼 원생들의 노동이 착취적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었는데, 양카라학원에서 원생들의 노동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원생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영유아나 저연령층보다 13세 이상의 노동 가능한 연령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 노동이 가능한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요?

4

양카라학원의 폐쇄 과정

〈표 16〉을 보면 원조단체 보조금이 1963년보다 1966년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1960년대에 원조단체 보조금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6년의 수치는 예외적인 사례인지요? 또한 양카라학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965년에 영아원을 개설하고, 1971년에는 육아원 정원을 감축하면서 영아원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쟁고아나 문제아동의 수용 수요가 약화되고 미혼모 자녀 등 영아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미에 양카라학원의 역사를 발굴·복원하는 작업이 갖는 의미를 보완해서 서술해주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3

박정하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양카라학원 설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 역사를 직접 살아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귀한 원고를 읽고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카라형제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술자분의 삶이 곧 양카라학원의 역사이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 원고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양카라학원’이라는 이름과 아일라의 일화 정도로만 기억해 온 역사를, 실제로 그 지붕 아래에서 자란 분들의 생애 구술을 통해 ‘아래로부터’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깊습니다. 한편의 원고는 한국전쟁 피란에서 양카라학원 폐원에 이르는 시간을 주제별로, 다른 한 편은 구술자 일곱 분 각자의 인생을 인물별로 엮어서 같은 구술 자료가 두 가지 방식으로 기획되었다는 점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원고가 가진 유의미한 발견과 고찰을 염두에 두면서 토론자로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저자의 고민과 판단을 청중과 함께 나누며 이 원고의 의미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첫째, ‘어긋남’을 중심으로 구술을 엮어 내는 방법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두 원고는 일곱 분의 방대한 기억을 선별하고 배치하여 한 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집필하였고, 다른 한 편은 인물별로 생애사로 엮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께서 내리신 판단이 궁금합니다.

특히 〈양카라형제회 구술자 기본 정보〉 표에서 “출생연도와 입소시기는 구술자의 증언과 대조하여 일부 수정”했다는 비고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문서나 옛 신문 보도와 구술자의 기억이 서로 어긋난 지점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 어긋남 앞에서 저자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느 쪽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어긋남 자체가 이 작업에서 무엇을 말해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곱 분의 기억 사이에서도 같은 장면이 조금씩 다르게 떠오르는 대목—가령 위문공연을 두고 당일에 돌아왔다는 기억과 군부대에서 하룻밤을 잤다는 기억이 함께 실린 것처럼—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엇갈리는 기억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 때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술생애사가 공식 기록을 단순히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바로잡거나 그 행간을 메우는 사료가 될 수 있다면, 이 원고에서 그런 대목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기록을 집필한 저자의 위치성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구술 기록은 말하는 사람과 듣고 적는 사람이 함께 빚어내는 공동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자께서 어떤 자리에서 이 작업에 임하셨는지를 청중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는 어떻게 구술자분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구술자분들과 신뢰를 쌓아 마음 깊은 곳의 기억까지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원고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이야기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보면, 어떤 구술자는 결혼하면서 튀르키예군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없앴다고 하였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형제회가 거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들려주신 구술자분들은, 오랜 침묵을 넘어 말하기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침묵 대신 증언을 택하게 했다고 보시는지, 또한 누군가의 가장 아픈 기억까지

듣고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느끼신 책임감이나 망설임은 없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구술 작업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귀한 일임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발표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정된 분량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기에, 발표자께서 더 파고들고 싶었으나 비워 두실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원고가 양카라학원의 따뜻한 정을 충실히 그리면서도 그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원고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봅니다. 예컨대, 원장은 한편으로는 취업을 알선하고 후원을 이끌어 낸 은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의혹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학원은 원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돌연 사라졌고, 입양 기록이 원장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탓에 뿌리를 찾아온 입양인은 끝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장(들)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인 기억,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원과 기록의 소실이라는 양카라학원의 마지막 모습을 저자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글로 표현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공동체 서사는 주로 1950년대 초중반의 '전쟁고아 세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수업 선생님 스스로 이후의 유아원 출신 세대는 "모임(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하였고, 임덕환 선생님은 바로 그 경계에서 굶주림과 진학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양카라학원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김근태 선생님의 동생처럼, 같은 전쟁고아라도 그 지붕 바깥에 있던 이들의 운명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분량상 충분히 다루기 어려웠을 이후 세대, 국내외로 입양된 이들, 그리고 학원 바깥에 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이 구술 기록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원고에서는 형제회 회원들이 "양카라학원의 정신을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이 장면들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제회는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으며, 오수업 선생님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게 양카라학원이 '물려받은 기억'으로서 계속 살아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구술 기록이 바로 그 계승에서 어떤 몫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이 작업이 학계와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튀르키예 한국전쟁 참전과 돈독한 형제 관계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 구술을 통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생애 구술의 기록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우호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질문이 발표자께서 품으셨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되어, 이 구술 작업의 깊은 의미와 의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